

겨울동화 속 눈 내리는 풍경 '고독하되 당당하다'

2024. 08. 15. | 우진영 미술 칼럼니스트

[arte] 우진영의 한국 근현대 미술 산책

이성자 <눈 덮인 보지라르 거리>와 이채원 <고요의 바다>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운동주의 ‘눈 오는 지도(地圖)’ 속 한 구절이다. 그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떠난 이를 그리워했다. 겨울은 때로는 낭만적이고 때로는 모질다. 이 계절의 양면성을 그려낸 두 화가가 있다. 근대의 이성자와 현대의 이채원이 펼쳐내는 겨울 이야기가 궁금하다.

얼음을 녹이는 마음에 관하여



이채원, <고요의 바다>, 2024,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181.8×227.3cm / 사진제공. 이채원

무력함에 휩싸였다. 지난달 어느 주말이었다.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였다. 체감 몇도, 한파주의보라는 글자가 스마트폰에 뜬다. 기운이 빠져나간다. 날씨 뉴스의 흔한 표현일 뿐인데. ‘나는 왜 곰이 아닐까.’ 어릴 때부터 바라왔다. 겨울 내내 잠을 자고 싶다고. 손발이 차고 허약한 체질이다. 이불 속에서 투정하며 SNS 속 이미지들을 습관처럼 넘겼다. 눈이 멈췄다. ‘북극곰인가’ 싶었다. 다시 보았다. ‘거대한 얼음 조각인가?’ 끌렸다. 무기력이 사라졌다. 안온한 이불속을 나왔다. 한남동으로 향했다. 이채원의 그림을 보고 싶었기에.

통창에 비치는 그림 속 파랑들이 빛나고 있다. 투명하게. 이끼리듯 유리창 안으로 눈을 맞춘다. 성큼 다가온다. 하얗고 커다란 존재들이. 디스위켄드룸 갤러리의 문을 열었다. 이채원의 개인전 《모든 숨》으로 들어갔다. 맑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눈이 시리다. 새하얀 눈들로 뒤덮였다. 그 찬연함에 취할 듯하다. 현실을 건너 다른 세계로 진입했다. 작품 사이사이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다. 마음이 들떴다. 한껏 떠 있는 구름의 형상을 담아낸 그림을 지나 한 작품을 마주했다. 압도 당했다. 2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이다. 찾아들었다. 한껏 들뜬 감정들이. 거대한 형상들이 덮쳐온다. 정면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채원의 <고요의 바다> 앞에 섰다. 유기체들이 융기한다. 울퉁불퉁 튀어나오듯 존재를 과시한다. 한기가 성큼 몰려오더니 온몸으로 퍼진다. 기이한 형체들이 말을 건다. 위압적으로. 낭만이 부서진다. 뒷걸음을 친다. 나도 모르게. 솟아나고 갈라진 조각들이 경고한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라고.

그 순간 한 소녀의 모습이 스친다. 어린 시절의 나다. 온기가 깃든 이불 속에서 책장을 넘긴다. 카이와 게르다를 좋아하는.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보는 중이다. 울고 싶었다. 악마의 거울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혀버렸을 때. “안돼, 어서 피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말했다.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을 때. 얼음처럼 차가워진 카이를 녹인 건 게르다의 눈물이었다. 안도했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게르다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속 작은 소망을 품었다. 그 겨울날부터. 십 대 소녀의 순진한 다짐은 차츰 잊혔다. 바래지고 희미해졌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변했다. 맞서고 싶어졌다. <고요의 바다> 속 거대한 형상들에게. 그 차가움 속으로 들어가겠다. 기꺼이.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다. 얼음들은 솟아있다. 여전히 위용을 뽐내면서. 움츠러든다. 갈라지고 뺨어있는 유기체들의 몸짓이 공격한다. 오싹해진다. 상상했을 뿐인데 이미 그 몸짓에 베어버렸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마음이 무너진다. 나의 약함이 새어 나온다. 숙절없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새삼 깨달았다. 겨울이 힘든 이유를. 혹독한 냉기가 맨얼굴을 보이게 한다. 기어이. 온기 속 숨겨졌던 약함이 드러난다. 감춰지지 않는다. <고요의 바다>를 보며 느낀 공포의 이유였다. 살짝 손을 뺐는 순간 얼어붙는 게 아닐까. 얼음 조각이 박히고 정지해 버릴까 봐. 다시는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피가 식는다. 어두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

문득 궁금해진다. 드넓은 캔버스 속 까맣게 채워진 공간은 어디일까. 바다 깊은 곳의 어둠일까. 차디찬 물이 흐르는. 극지의 어느 곳이려나 새까만 밤이 펼쳐지는. 신기하다. 생각이 상상으로 옮겨가는 순간, 마음이 풀려간다. 조금씩 그리고 찬찬히. 그림 위쪽의 동그란 달이 보인다. 비추고 있다. “차가움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달빛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속삭이듯이.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렸다” 작업에 대한 이채원의 설명이다. 도시에서 자랐으나 사계절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꼈단다. 일렁인다. 그림 속 딱딱하게 뭉쳐있던 눈덩이가 달라 보인다. 몽글몽글해진다. 일그러졌던 마음이 둥그러진다. 체온이 높아진다. 새하얀 조각상에 손을 뺨어본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발견했다. 주름이 잡혀있다. 살아있다. 새하얀 얼음의 대지는 죽은 땅이 아니었다. 생명의 흔적이 숨 쉬는 중이다. 다시 보니 식물들이 피어나고 있다. 얼어붙은 땅으로부터. 숨을 쉬어본다. 가만히 멈추어서. 이채원이 그려내는 세계는 이처럼 신비하다.

‘예민하게 살아나는 마티에르’. 이채원의 회화 속 모티브는 피어난다. 생생하고 선연하게. 안기고 싶다. 그녀가 만들어낸 층층이 쌓인 구름 속에. 곁에 눕고 싶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고양이와 늑대와 함께. 이제 알았다. <고요의 바다> 속 유기체들의 속내를. 기대어 있다. 몸을 맞대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다. 마음이 녹는다.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을 거 같다. 이채원이 그리는 겨울 동화를 만났으니.

눈길에 나의 발자국을 새기다.

혹한의 날들이다. 이 계절이 끝나기 전 한 번 더 눈이 내리기를. 새하얀 눈길 위에 나의 발자국을 남기리라. 이성자의 < 눈 덮인 보지라르 거리> 속 고목처럼 당당하게. 이채원의 <고요의 바다> 속 얼음 조각상에 나의 온기를 맞대며.

[출처] arte

(<https://www.arte.co.kr/art/theme/7126>)